"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4) 바른 질서 위한 수단 ' 권징치리 "
−권징, 거룩함 지켜내는 도구−

■ 최윤배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조직신학)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한 권징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제'에 이어 '정치' 분야라고 한다. 일반 사회와 국가라는 '세상(세속)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은 때로는 실망해 부정적으로, 때로는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기독교회사에서 일부 기독교 종파는 정부나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対敵)하는 것으로 이해해 정부나 국가를 완전히 무시했다. 장로교회는 정부나 국가를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의 영역으로 이해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부나 국가에 대해 협조적이면서도, 때로는 악한 정부나 국가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국어사전은 '정치(政治)'를 '국가의 주권자가 그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및 교회와 관련된 '교회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항간에 '그 목사는 지극히 정치적이다'라든지, '그 장로는 지극히 정치적이다'라는 말 속에 '교회 정치'가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된 나머지 정치에 관심하거나 정치에 관련된 목회자나 성도는 '지극히 세속주의적이며, 거룩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장로교회 입장에서 과연' 교회 정치는 이처럼 부정적으로만 이해돼야하는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듯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장로교회의 정치에 대해 살펴보기 전, 먼저 교회 정치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7세기 중엽 영국의 퀘이커교도(Quakers)는 모든 교회 정치를 원리상 거부했다. 그들에 의하면, 모든 외형적인 교회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부패하여 기독교 정신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며, 교회의 외형적 정치제도는 신적 측면을 희생시키고, 인간적 요소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에라투스(Eratus, 1524~1583)를 따르는 에라투스주의자들은 교회는 국가가 제정한 법규에 따라 존재하며, 형성된 일종의 사회로 간주한다. 교회의 직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인데, 정부나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다스릴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심지어 파문(破門)을 선고하는 것도 국가에 위임된 기능이다. 교회의 견책은 그 시행이 교회의 합법적인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나 정부가 주는 형벌이다. 셋째, 감독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고위 성직자들 또는 감독들에게 위임하셨으며, 이 감독들은 구별되고, 독립적이며,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있는 성직으로 만드셨다고 말한다. 이 교회 정치제도에서 신자들의 공동체는 교회 정치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교회사에서는 초기에 로마(천주)교회가 이 같은 정치 제도를 채택했다.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정치 제도가 에라투스주의 정치제도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넷째, 로마(천주)교회의 교황정치제도는 감독제도의 논리적 귀결이다. 로마(천주)교회의 제도는 자신들의 교회 안에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서도 수위를 차지하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신들 안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후계자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대리자가 되는 셈이다. 이 교황 밑에 성직자들이 계층구조적인 질서를 통해 서열화돼 있다. 신자들은 교회 정치에 대해 발언권이 거의 전무하다. 다섯째, 회중파 또는 회중교회제도는 소위 독립교회의 제도로 부를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교회 또는 회중은 독립된 완전한 교회이다. 이 같은 교회에서 교회의 치리권은 독점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있다. 직원들은 단지 지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의 제반사를 관리하도록 임명되었을 뿐,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스릴 권한이 전혀 없다. 필요할 경우,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 회의나 지회나 지방회(地方会)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이 연합체의 결정 사항은 권고적이거나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회에 법적인(교회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치제도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발전했다. 국가교회를 형성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국가의 통수권자가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했고,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독립한 자유(自由) 개혁교회와 자유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자체가 독립적인 교회정치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교회 정치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곧 '하나님의 질서(the order of God; ordo Dei)'에 속한다. 우리 교단은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해, 자유 장로교회에 속한다. 또 두 장로설에 기초해 목사(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와 장로(치리만 하는 자)로 구성되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治理会)를 가지고 있다.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치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칼뱅은 교회의 권위를 교리, 입법, 재판에 관한 권위로 구별하고, 권징을 재판과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대체로 칼뱅과 자유 장로교회 전통을 따라, 교단의 '헌법'은 크게 네 가지 내용, 곧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담고 있다. 헌법의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표준으로, 구속사와 교회 속에서 성령의 역사(役事)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제정돼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내용은 항상 성경에 종속되는 동시에 성경의 내용과 정신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 '헌법'은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교회 정치'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도구와 방법이다. 치리회를 중심으로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으며, 교회가 제정한 '헌법'은 성경만큼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부족한 부분은 치리회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헌법은 항상 '교회 정치'로서 최대한 존중되고, 실천돼야 한다. 한국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를 중심으로 가끔 덕이 되지 않는 일부 목회자와 성도의 행동과는 별도로, 일부 목회자나 일부 성도에게 가끔 발견되는 '교회 정치'에 대한 퀘이커교도적이거나 회중교회적인 사고는 반드시 지양(止揚)돼야 한다. 네덜란드의 개혁파 윤리학자 까이떼르뜨의 책 제목인 '모든 것이 정치적이지만,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Alles is politiek, maar politiek is niet alles)'라는 말은 한국 장로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칼뱅과 마르틴 부처는 '인간의 법'에 기초해 교회와 교인을 얽어매는 로마(천주)교회의 전제적(専制的) 교회 정치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교회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질서한 급진파 종교개혁 진영을 동시에 비판함으로써, 성경에 기초한 교회 정치의 원리와 실천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참된 자유를 실현시켰다.

마르틴 부처(Martin Bucer)는 '참된 목회학'(1538)에서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매우 강조했다. 우리 교단도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하지만, 칼뱅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칼뱅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하는 '교리'를 '교회의 영혼(anima)'으로, '권징'을 '교회의 근육(힘줄, nervus)'에 비유할 만큼 '권징'을 강조했다. 칼뱅은 권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권징의 절차와 방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엄격주의를 배격하고, 온유한 심정과 사랑(갈 6:1; 고후 2:7~8)을 강조했다. 마르틴 부처와 칼뱅에게서 권징은 '사랑의 매'로서의 '치유와 구원의 수단'에 해당된다. 일부 기독교 교파는 권징을 선택론과 결부시켜 '출교(ex-communicatio)' 받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은(anathema) 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마르틴 부처와 칼빈과 장로교회는 '출교' 조차도 선택론과 결코 결부시키지 않는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회의 권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잘 계승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또한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이다. 칼뱅이 권징을 강조하고, 마르틴 부처와 대부분의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화와 성결을 통한 교회의 도덕성과 거룩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먼 나라에 있는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몇 십 년 전의 한국 장로교회의 당회록을 읽어보아도, 우리는 성경과 온유한 심정에 기초한 올바르고도 책임적인 권징을 통해 성도와 교회의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실천함으로써 성도와 교회의 거룩성을 잘 유지해 그 당시 한국사회에 모범과 귀감이 돼 존경과 신뢰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독공보 제305호 2016년9월3일 (토)에서 발췌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세라
교육목사 임규현 심진희 정대은 협동목사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고수은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야곱·주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옴,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뿐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잔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제27권 제8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7년 2월19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고난을 받으라"

■ **딤후 1:7~8**

디모데후서는 분류상 목회서신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는 감옥에 수감 중인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교훈서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스승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1.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예를 우선시 했던 로마시회에서의 수감생활은 수치스러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 받음을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목이 열리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엡 3:13). 우리가 환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고난의 원인은 복음이므로 복음을 버리면 고난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이 두려워서 복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 바울의 당부

불의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빈번하게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환란은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많은 재물을 가진 자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고속출세를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지켜내는 믿음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고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보람과 가치와 대의명분을 생각하며 피차에 격려하며 주님이 뜻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출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세상 적으로 보면 사형을 앞둔 실패자로 보일지 모르나 자신은 모든 경기가 끝나고 하늘의 면류관만을 기다리는 진정한 승리자임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맺는 말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불원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섰던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반세기전 이 땅에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실천했습니다. 구약의 욥도 원인과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10)고 고백하면서 고난과 환란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평생 예수 이름 부르며 대우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곳이 아닙니다. 달걀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걀은 너무도 연약하여 서로 붙여놓으면 깨지기 쉬울 뿐더러, 이같이 달걀 성도는 상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서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힘든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때 마침내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이때, 한때 적(籍)을 가졌던 손님 성도로 남을 것인지, 이 고난을 극복하며 주인 성도로 남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함께 돕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일상적인 고난을 함께 연단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김성봉 목사(신반포중앙교회 은퇴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안인호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노문환 장로
Ⅲ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문석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9:105-10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63(시 14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20(4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14:25-3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설 교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현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이승구 목사
* 찬 송 Hymn ·····461(51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42:1 ····· 인 도 자
찬 송 ····· 363(479) ····· 다 함 께
기 도 ····· 예완식 집사
성 경 ····· 눅 10:25-3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 이와 같이 하라! " ··· 설 교 자
* 찬 송 ····· 447(448) ····· 다 함 께
* 축 도 ····· 인 도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기 도 ····· 김인숙2 권사
성 경 ····· 룻 1:8-1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류충기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Ⅰ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박승기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민스터 홀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16교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모임 / 24일(금) 오후7시 오코다리(구 한소반)
2.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 25(토) 오전8시 교회 출발(세계성막복음센터- 평택)

◈ 알 림

1. 102호 예배
청소년 예배(중, 고등부) : 주일 오전 9시-10시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다락방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4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9시-10시

3. 금주 수요예배는 2월 22일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4. 이승구 목사 소개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졸업(B.A.)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전공(M. E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M. Div.)
영국 스코틀란드 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신학석사와 박사(Ph.D.)학위를 받았다
미국 Yale 대학교 신학부 연구원 현재 합신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교수 많은 저술과 논문이 있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장

◈ 장 례

1. 故 한긍수 집사(10교구 박춘자 권사의 부군, 8교구 한상욱 집사의 부친, 손영희 집사의 시부) /
2월14일(화) 별세, 2월16일(목) 천국환송예배
2. 故 최일순 집사(16교구 김운성 집사의 모친, 최재련 집사의 시모) / 2월18일(토) 별세, 2월20일(월)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출석현황(주일1,2,3부 예배, 찬양예배, 교회학교)
1월22일 : 주일1,2,3부 예배-826명 / 찬양예배-224명
1월29일 : 주일1,2,3부 예배-788명 / 찬양예배-302명
2월 5일 : 주일1,2,3부 예배-967명 / 찬양예배-251명
2월12일 : 주일1,2,3부 예배-852명 / 찬양예배 214명 / 교회학교 130명

수입, 지출 내역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1월 22일	헌금	7,811,100		십일조:2,840,000 주일:3,261,100 감사:1,220,000 교회학교:0 기타:490,000
1월 29일	헌금	54,506,400		십일조:49,004,400 주일:3,682,000 감사:1,460,000 교회학교:0 기타:360,000
2월 5일	헌금	49,713,650		십일조:41,041,400 주일:4,601,600 감사:3,233,000 교회학교:357,650 기타:480,000
2월 12일	헌금	29,571,400		십일조:21,672,000 주일:4,288,400 감사:3,045,000 교회학교:216,000 기타:350,000
2/5~2/12	말씀봉사비		23,040,000	교역자 사례
*	찬양운영비, 찬양대사례비		17,150,000	솔리스트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사례
*	구 제 비		2,600,000	최정숙 권사 구제 외
*	출 판 비		6,180,000	순례자 발행, 출판비
*	급 여		39,624,000	직원급여
*	인 건 비		13,187,900	경비, 청소집사 용역비
*	사무비		69,730	회계프로그램 사용료 외
*	도서인쇄비		1,460,000	주보인쇄용지
*	소모품비		1,661,200	1층로비 토너 외
*	교통통신비		1,663,890	교회 전화료 외
*	차량유지비		497,300	8190 주유비 외
*	세금과공과		1,989,380	호산나대학 도로점용 등록면허세 외
*	복리후생비		470,590	병원치료비 외
*	수도광열비		16,648,260	교회 전기료 외
*	환경유지비		108,900	매트교체
*	수선유지비		5,217,600	열쇠시공 외
*	새가족운영비		12,040	새가족사진 인화
	합 계	141,602,550	131,580,790	

*2017년1/4분기선교비:120,388,320원, 농어촌교회후원금 : 20,900,000원 2017년 1/4분기 군선교비 : 19,800,000원 수입(헌금)부족으로 집행하지 못 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희망은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이며 완성에 대한 지향이다. 희망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는 있어도 생존할 수는 없다.

희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 중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범례를 남겨준 인물이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희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희망을 갖고 견디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자기 아내와 자신의 백세라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 나가자.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사람과 진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희망을 가져 무지개를 보면서.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